

# 서울대총장·문교부장관 역임한 權彝赫박사 가족

서울대총장, 문교·보사·환경부 장관, 교원대총장, 과총회장 등 화려한 경력의 권이혁박사는 아들과 2명의 사위 그리고 외손자 등 3대가 의학의 길을 걷고 있는 「醫學名家」를 이루고 있다. 미국서 의사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 권윤택박사와 서울대 교수인 큰사위 윤용범박사와 둘째사위 이명묵박사 그리고 외손자들이 모두 의학을 전공하고 있다.

## 2명의 사위 함께 서울의대교수 재직 아들은 美서 의사 활약 「의학名家」이뤄

권이혁(權彝赫)박사는 서울대총장을 비롯 문교부·보사부·환경부장관을 두루 거쳐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주>

녹십자 회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참으로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다.

어린시절 군수가 되고자 하는 꿈을 지녔던 권이혁박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과 서울대학교병원 원장직을 맡았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래 경성제대 의학부를 거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한 의학도였다.

### 3대가 의학전공

권이혁박사는 일선에서 여러 보직을 맡았기 때문에 의학도로서 끝까지 전공분야 연구에 몰두하진 못했지만 그의 아들과 사위, 손자까지 3대째 의학의 길을 걷고 있어 의학명가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큰 사위인 윤용범(서울의대 소화기내과)교수와 그의 장남인 윤원재(서울대 의예과 2학년 재학중)는 생김



▲ 아들과 2명의 사위 그리고 외손자 등 3대가 의사의 길을 걷고 있는 의학명가 권이혁박사 가족사진

새와 분위기가 너무 흡사하여 캠퍼스 내에선 이들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부자간이라 한다.

여기에 둘째 사위인 이명목(서울의대 순환기내과)교수의 아들인 이기문(플랭클린&마살대 예과코스)도 의학의 길에 첫발을 내딛었고 딸 이기임도 현재는 미국에서 고교에 재학중이지만 역시 의학공부를 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권이혁박사가 1970~76년까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으로 있을때 장남인 권윤택박사 역시 서울의대 재학중이어서 권이혁박사를 비롯 큰 사위와 둘째 사위도 교수의 입장에서 아들들을 의대생으로 맞이했다는 특이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권이혁박사의 장남인 권윤택박사는 이들 두 사위 모두 경기고등학교와 서울의대의 다같은 선후배 사

이이고 윤용범교수의 남동생인 윤용업(서울의대, 작고)과는 동기생이란 묘한 인연으로 얽혀있는 집안이다.

하지만 권이혁박사의 가계는 3대째 의학을 전공했다는 점에선 같지만 의학을 공부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는 각기 다르다.

우선 이 집안의 대부인 권이혁박사가 의학을 전공하게 된 배경은 이렇다. 권이혁박사가 마포에서 똑딱선을 타고 지금 서대문에 있는 금화초등학교에 다닐 무렵 이곳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있다면 옆구리에 번쩍이는 칼을 차고 다니는 일본 순경이었다고 한다.

### 의사였던 자형영향 의대진학

그런데 하루는 천하무적같이 보이던 일본 순경이 한 젊은 사람한테 굽신거리는 광경을 보게 되어 저 젊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이 마을 군수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마을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군수가 되는 것을 꿈꿔왔던 권이혁박사는 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혼자 법학 공부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날 10남매인 권이혁박사의 큰 누님인 권이남씨의 남편되는 큰 자형이 조선 사람은 기술이 있어야 살아남는다면서 뭐든지 기술을 익히라고 충고했다고 한다.

또 특이할만한 기술이 없으면 의술이라고 익혀야한다고 했다고

하는 것이다. 실제로 큰 자형은 의사였고 권이혁박사가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장본인이었다고 전한다.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입학한 권이혁박사는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것은 아무래도 적성이 맞지 않을 것 같아 직접 환자를 다루어야 하는 임상학보다는 예방의학을 선택했다. 그러나 막상 의학을 공부하고 보니 재미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갈수록 공부에 흥미가 가더라는 것이다.

여러 보직을 맡기 전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 가족계획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마살 벨포박사의 권유로 1962년 가족계획관련 연구를 수행했다.

당시 성동구를 표본집단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가족계획에 성공할 수 있는냐는 문제하에 '부인용자궁내장치 IUD'와 '가정방문요법' '피임약품사용' 등 세개의 대안을 놓고 연구를 했다고 한다. 지금도 서울대 의과대학내에는 권이혁박사가 연구한 가족계획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는 의학연구소가 있다고 한다.

80년대 초부터 서울대 총장을 맡으면서 실질적인 권이혁박사만의 연구생활은 단절되었지만 여러 보직을 통하여 다양한 식견을 넓힐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여러 보직으로 인해 개인적인 연구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말한다.

### 아들 권윤택박사 번역학전공

권이혁박사의 장남인 권윤택박사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해군 군의관으로 군복무를 마친 후, 도미하여 알려지 및 번역학 전문의가 되어 현재 미국



▲ 권이혁박사의 죽점보통학교 졸업시의 모습

샌프란시스코에서 의사생활을 하고 있다.

원래 권유택박사는 서울공대에 입학했으나 곧 아버지와 같은 의대를 다시 선택한 경우이다.

권이혁박사의 장녀 권인택은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남편인 윤용범교수와 사이에서 2남을 두고 있다. 큰사위인 윤용범교수는 윤교수가 대학을 선택할 당시는 공대가 유망해서 우수한 학생들이 공대쪽을 많이 선호했으나 윤교수는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되길 희망했고 좋아서 의학을 선택했다고 한다. 윤교수는 서울대의 과대 내과교수로 소화기내과중에서도 간을 전공했다. 특히 윤교수는 '췌장 및 담도계' 분야에 많은 연구를 했고 이 분야에선 대가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장남인 윤원재는 현재 서울대의학과 2학년에 재학중으로 아버지와 함께 하얀 까운을 입고 환자를 돌보는게 어릴 적부터의 꿈이었다고 말한다.

### 매주 온 가족 모여 담소나눠

또한 윤원재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므로 모든 생각하는 방법이나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배우려 한다고 한다. 또한 외삼촌인 권유택박사와는 모든 면에서 잘 통하는데 그중에서도 아버지를 동대학 교수로 모시고 있다는 점에서 받는 부담감을 서로 잘 이해할 수 있어 더욱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한다.

또한 윤원재학생은 외할아버지는 너무도 유명한 분이시고 사회에 미친 공



▲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한 한영우박사(노벨재단 고문)내외와 함께 포즈를 취한 권이혁박사 부부(右)

로도 지대한 분이어서 늘 그분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아직 2학년이라서 뭐라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아버지가 일궈온 소화기내과를 전공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둘째 딸인 권성택의 남편인 이명목교수도 역시 서울대 내과 교수로, 내과중에서도 순환기내과 중 심장계통을 주로 연구했다.

이명목교수는 "중재적치료법"에 많은 업적이 있다. 이들에게는 1남1녀가 있는데 장남인 이기문은 플랭클린&마살대학에서 예과 코스를 밟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많은 집에서 자라나서인지 자연스럽게 의학의 길로 가겠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명목교수는 의대가 공부할 것도 많고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반대하진 않았지만 찬성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장녀인 이기임도 아직 고등학생이라 진로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역시 의학 공부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셋째 딸인 송택은 인하대학교 화공과 교수로 있는 안희승교수와 사이에 2녀를 두고 있으며,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조교수로서 음악학을 가르치고 있다.

평소 여행을 좋아하는 권이혁박사는 주로 여행을 통해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지키고 있고 가족 모두가 또 건강해 의사가 집안에 넷이나 되지만 아직 병을 얻어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한명도 없었다고 한다.

권이혁박사의 가계는 큰 아들과 막내 딸이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두딸과 사위가 모두 서울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모여 담소를 나눈다고 한다. 요즘은 교통이 막혀 갈 곳이 마땅치 않을 때는 권이혁박사의 형님이 있는 시골로 내려가 하루 종일 식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하정실(본지 객원기자)